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7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1. 현안질의 6

(14시41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및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 2항 규정에 따라 간사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부득이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너무나 엄중한 문제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에서 객종근 사령관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단전을 지시했고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의 재판에 심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방위 소집을 요구했고 여야 간 간사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간 민주당이 상임위 개의 요구 시 야당의 의견을 늘 존중해 왔습니다. 지난 12월 5일 국방위를 열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즉각 수용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야당의 요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또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국조특위에서 양당 공히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증인 채택 명단에 들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김현태 단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탄핵 공작을 위한 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단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김현태 단장께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국민들께 정확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야당의 불참이 아쉽지만 부승찬 간사님과 허영 위원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언에도 귀를 기울여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계엄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과 탄핵 공작과 관련된 많은 사실들이 정확히 전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차관님, 왜 민주당에서 소집 요구할 때 참석 안 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어떤 말씀이신지……

○부승찬 위원 지금 계엄 이후에 네 차례 소집 요구,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차례 소집 요구 중에 두 차례가 불허돼서, 합의가 안 돼서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빠진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국방위 합의는 없는 겁니다.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빼그덕 빼그덕거리기는 해도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단장 왜 참고인으로 부르니까, 증인으로 불러야지? 위증의 죄를 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판 깔아 주는 거지요. 국정조사특위도 있고 헌재도 있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이 안 되는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태 단장을 불러서 질의를, 진술을 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K-1 기관단총 5900여 발 갖고 들어온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집니까? 어찌 됐든 지하 1층에서 단전, 차단기 내린 건 사실 아닙니까. 바뀔니까?

더구나 지금 김현태 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 단순한 참석자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김현태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날 본인이 한 걸 다시 봐요, 뭐라고 했나. 본인이 울면서 한 얘기를 직접 본인이 시청하고 되새겨 봐요, 뭔 얘기를 했나.

그리고 10일 날, 회유당했다는 날 바뀐 게 있습니까? 오히려 약화됐어요. 본인이 기자회견 한 것보다 더 약화됐어요.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해져야 돼요. 총을 쏘라고 지시했다든지 이게 회유지요. 그런데 헌재에 가서 바뀔니다, 일부가. 그러면 그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야당 간사로서 여야 간 합의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부승찬 위원 야당 간사로서 여야 간 합의 없이 지금 이 회의를 진행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우리가 지켰던 합의의 정신은 깨지는 겁니다. 법안소위도 마찬가지로 예산소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가야지요. 이건 국회 국방위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당 위원님들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저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항의하러 왔습니다. 당연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자리를 뜰 것입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통보받은 것이, 제가 확인한 것이 1시 45분입니다. 문자를 확인했더니 10시 47분에 보냈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현안질의라고 와 있습니다. 누가 참석하는지, 그것이 단전·단수에 대한 현안질의인지, 김현태 단장을 출석시켜 놓고 하는 질의인지 아무런 공지가 없었습니다. 1시 45분에야 확인하고 부랴부랴 이 회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까,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증인의 자격도 아니고 단순 출석의 자격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걸 보십시오. 이게 회의 성립의 요건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가 떠나면 여당 위원들만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또 다른 회유의 한 공간이 될 뿐이지요.

여당 위원들이 여당의 입장에서 계속 질의하면 그것이 회유와 강요에 의한 질의이지 이게 어떻게 진실을 바로잡는 과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 회의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의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속히라도 오늘 회의를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다시금 잡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여지껏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방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님 노력해 오셨습니다. 외국에 나가 계실 때도 급거 귀국하셔 가지고 비상계엄의 부당성 때문에라도 국방위는 선도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참석자들이, 증인들이 진실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실들이 이나마 참석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억지스러운 자리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허영 위원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의 그 노력이 이러한 일방적인 회의 소집으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 회의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고 여야 간에 오늘이라도 그러면 다시 한번 합의를 봐서 다음 기일을 정하고 또 이 자리가, 이 증언이 법적 구속력과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 조건을 갖춘 회의를 소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저는 국방위원회 위원이지만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국조특위의 간사를 하면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증인들이 채택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당에서 요구하는 증인들을 받아 주지를 않은 겁니다. 다수의 인원으로서 그냥 밀어붙이기로 채택했지요.

이제 마지막 두 번 더, 21일하고 25일 날 국조특위가 운영되는데 이때도 우리가 707특임단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끝까지 포함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증인채택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우리 여당 위원들이 전부 다 퇴장을 한 상태에서 민주당만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우리가 좀 참석해 달라고 한마디로 통사정해도 안 해 주면서 국방위원회에서 부른 것을 가지고 지금 야당 위원이 이것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자리를 만들었겠습니까?

형평성에 그리고 공정성에 안 맞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에서도 바로 이러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이 국방위를 소집할 때는 문제가 없고 여당이 소집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편협된 생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중** 윤상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헌정사의 최대 변곡점이 되는 중대한, 정말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에서는 탄핵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한 2년 정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호텔 도청 사건이 터진 게 1972년이고 상원에서 마지막 표결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무려 2년 걸립니다. 1997년 클린턴 대통령도 모니카 르윈스키 사건에 연루돼서 사법 방해 또 위증죄로 탄핵의 위기에 몰렸을 때 무려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나의 야당의 정권 찬탈 도구가 돼 버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12월 3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민주당은 다짜고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했고 거기에 모든 언론들이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사이에 또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손을 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3 비상계엄 딱 11일 후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결국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정사의 중차대한 변곡점에 맞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국회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런 상임위 열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로 민주당 위원들이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면 그들이 하는 선전·선동·왜곡이 아니라, 조작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한테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들어와라, 떼땃하지 못하면 왜 들어오지 못하냐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중** 강대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여당 간사로서 우리 야당과 합의 정신에 의해서 오늘 야당 위원들이 갈

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 바람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알 권리도 있고 또 특히나 지금 회유라는 말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서 회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성일중 위원장께서 특임단장 잠깐 만나서 대화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위원장이 회유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각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는지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이후에 만나는 것이 회유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만나는 그게 회유인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팩트에 근거한 사실들을 국민들이 똑바로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회의가 요구됐고 회의가 소집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여당 간사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중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방금 민주당의 부승찬 간사하고 허영 위원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지난 국조특위에서 거대 야당이 보인 횡포를 생각할 때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행동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조특위 기간 동안에 기관보고가 2회 있었고 청문회가 3회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 신청을 하면서 우리 여당 위원들이 요청하는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을 불러 놓고 실제로 질문도 다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15일을 기간 연장하면서 2회의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최초에 김현태 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까지 합의에 의해서 채택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김현태 단장과 관련돼서 일부 양심 선언한 내용들을 문제 삼아 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국조단 위원들이 항의를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김현태 단장뿐만 아니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까지 증인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야 간에 지금 이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국민들 앞에 상세히 밝히는 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몇몇하다면 21일, 25일 증인에 이 세 사람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중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없었는데 국방위가 열리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정이라고 하는 또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사회를 보는 데 치우치지 않고 사회를 봐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고 또 12월 3일은 우리 국방위가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을 방문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일 날 출발을 해서 3일 저녁에 저희가 이 소식을 들었고 4일 날 첫 비행기로 우리 위원들이 모두 다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요구하셨던 국방위를 바로 열었고 또 민주당이 요구할 때마다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도 늘 회의를 열어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의는 늘 공정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아주 중요한 것 빼고는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어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국방위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야당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여야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회의를 열기를 소망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 회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꼭 열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공정하게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었는데 왜 국민의힘이, 여당 위원이 배출한 위원장인데 왜 열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항의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든 공평하게 회의는 개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민주당의 국조특위 위원님들께서 국회가 단전이 됐었는데 이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단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 현재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러니 상임위를 열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또한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조특위에서 김현태 단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양당 공히 이 증인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함께 채택을 하도록 양당에 이름이 다 있었는데 회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임의적으로 민주당에서 다 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게 있으니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는 국민의힘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요청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었을 때 저는 회의는 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이 국민들께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회의가 치우치지 않고 야당이 요구할 때 열었듯이 여당이 처음으로 요구한 것을 저는 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회의를 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야당의 부승찬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 두 분 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가셨는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1. 현안질의

(15시04분)

○위원장 성일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김선호 국방부 직무대행님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출석해 계십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참석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워낙 큰 문제여서 제가 간단하게 한 1, 2분에 걸쳐서 잠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단장님 마이크 앞에 좀 나와 주시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김현태 단장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 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뉴스입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내용이 맞지 않는 뉴스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어제 회의할 때 보니까 ‘국회가 암흑천지가 됐다’ 그랬거든요. 제 기억에는 불이 꺼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다 들어 보지를 못했고. 그런데 지하 1층만 단전됐던 거 아닌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지하 1층만 잠시 불이 꺼졌는데 암흑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간 감시 장비도 없었고 당시에 저희 옆에 국회 관계자분들과 기자, 유튜버분들도 일부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CTV 상에 잠시 어두워진 부분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요원이 갔을 때 스위치에 별도로 어떤 스위치인지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1개의 스위치를 내렸더니 복도 불이 꺼지면서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에 암흑천지 같은 상황은 그 기간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때 우리 특임단장과 요원들이 국회에 들어왔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그때 단전을 지시한 거는 그러면 특임단장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시를 한 겁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00시 35분 경에 2층 중앙 복도 안쪽을 진입하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저희 인원들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사령관께 더 이상 진입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높은 데 올라가면 중앙 복도 안쪽, 뒤늦게 알았는데 로텐더홀이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안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4층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소화기 공격을 받고 제가 00시 50분에 사령관께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진입이 어렵고 앞에 많은 분들이 막고 계셔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와중에 사령관께서 ‘그러면 혹시 전기라도 내릴 수 없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국회 가결이라는 걸 사실 모른 상태에서 가결이 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의 국회 봉쇄를 통한 확보 임무에 필요한 지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탈 때는 관계자, 기자분도 같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내려갔고 지하 1층에서 소방관들과도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하 1층 내려갔을 때 순간 그 지시를 까먹고 지하통로가 연결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임무가 건물 봉쇄인데 이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첫 번째 부대원들과 한 것은 그 문을 막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하는 과정에 안규백 의원께서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문이 케이블타이로 잘 안 묶여 가지고 제가 근처에 있는 소방호스도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묶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단전 지시가 있었던 걸 그때 뒤늦게 제가 생각이 나서 부대원 1명한테 ‘야, 스위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 인원이 이동했는데, 어제 언론에서는 제가 국회 관계자분께서 가결이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대원을 보낸 것처럼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갓 대화가 시작할 때쯤, 제가 이미 임무를 주고 그 인원한테 한번 찾아봐라 한 이후에 대화가 시작됐고 그때 국회 관계자분께서 저에게 무슨 가결이 됐고 군인들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셔서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01시 07분에 사령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령관께서 ‘그러면 철수를 해라’ 그래서 01시 08분에 철수 지시를 했고 당시에 국회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분이 지하통로 문을 닫아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지하통로 문을 올려야 당신들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그 인원한테 ‘그러면 다시 스위치를 올려라’ 그래서 가서 올린 것이고, 스위치를 내린 그 시간대에도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져 가지고 암흑천지같이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사람이 식별되고 저도 야간 감시 장비가 없는 상태였는데 크게 불이 꺼졌다고 느끼기에도 애매한 그런 수준으로 잠시 꺼졌다가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단전 시간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언론에서 5분 정도라고 나왔는데 제 기억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저에게 이야기한 게 아마 01시 06분 경일 거고,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어서 07분에 사령관께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바로 퇴출을 했기 때문에 5분 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박종근 중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박종근 중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장원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썩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전된 거지요.

이 두 사람의 발언으로 그 이후에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작전을 펼친 겁니다. 또 현재 현재는 쫓기듯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중장은 4일 날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진우 중장은 ‘본관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없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707특임단장님께서도 6차 변론기일에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는 국회 봉쇄고 국회를 확보하는 것이 임무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여기서 봉쇄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7단장님이 그날 안규백 위원님을 복도에서 만났다고 그랬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시를 정식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구금하라, 들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안규백 위원도 국회의원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단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바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마주쳤고 했는데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들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묻자면 실제로 단장님은 국회의 본청, 이 건물이지요. 이 건물에 과거에, 12월 3일 이전에 들어와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없지요. 사실 이 안의 내부 구조가 어디서 어떻게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이 자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고서 들어오신 거지요, 그날?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한기호 위원** 당일 날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전원 차단도, 제가 전기를 좀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비상전원시스템이 있어서 본래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이 마비가 되거나 차단되거나 했으면 비상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비상 전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지금 발표는 5분이라고 하는데 5분까지 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재가동이 돼서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5분이라는 것도 제가 봐서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 단장님께서서는 유리창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는데 유리창을 왜 부셨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유리창은 제가 정문에서 몸싸움이 심해졌고 당시에 사령관께서는 계속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전화를 못 받다가 전화를 받고 현재 국민들과의 몸싸움이 심하다, 그래서 부상자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병력을 빼겠다 그랬더니 사령관께서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병력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루트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빼고 다른 루트를 찾는 과정에서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 문을 깬 것도 실제로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민간인들과 계속 접촉이 되고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거기서 소화기로 분사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다른 출입구를 찾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거 아닙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그날 군인들의 피해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임단의 단원들도 여러 명의 시계가 부서지고 막 했다는데 이게 군인들이 거꾸로 당한 하나의 모습인데 몇 명이나 시계가 부서졌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당시 저희 부대원들은 국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무를 준 게 벽면을 타고 우리 국민들을 한 명씩 밖으로 밀면서 정문을 봉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작전배낭이나 탄통이나 식량 이런 것들은 다 내려 두고 개인이 휴대해야 되는 장비와, 총기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몸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부대원들이 총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미는 것도 힘으로 막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들이 개인 시계, 고가의 시계도 포함돼 있는데 개인 시계 24점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개인 선글라스도 30점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신체 피해자도 나중에 확인 결과 18명이 있었습니다. 기타 군용물도 파손 38점과 분실 19점으로 확인했는데 기타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확인한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707 장병들이 여기 민간인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없지요. 오히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고 단장도 그렇게 생각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마주쳐도 끌어내려고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두건을 쓰고 있어서 따로 인사는 안 드렸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전원을 내린 것도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단장이 한번 전원을 내려 봐라 한 것이지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대통령 지시는 아니고 사령관께서 현재에서 진술하셨듯이 사령관 개인 판단에 의한 지시였고 저는 당시 그 지시가 건물 봉쇄 및 확보에 필요한 지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임무를 받고 간 요원의 말을 빌리면 그 인원은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한 번 불 끄는 거 찾아봐라’ 이 정도 말을 하니까 본인은 단장 의도가 지하 1층 문을 이렇게 닫는 데 필요한 조치라 이해하고 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하는 걸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날 단전은 잠깐 사이였고 다 보였다. 피아, 예를 들어서 무슨 물체 식별이 다 가능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자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민주당의 이 왜곡, 선전·선동, 조작, 무슨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것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당시에 단장님은 예를 들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없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서는 그 당시에 국회 의결 절차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으셨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없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서는 오직 통제 임무만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저희는 최초 부여받은 건물 봉쇄 후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단전하라’ 이런 지시는 광종근 사령관한테 통화 중에 들었다는 거였고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광종근 사령관도 헌법재판소 가서는 ‘본인의 판단이었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연관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12월 10일 날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있으셨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윤상현 위원 그때 점심시간 때 3층에 어디 가 가지고 쉬고 있는데 민주당 위원 두 분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들이닥쳤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아닙니다. 국회에 온 것도 처음이었고 처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언론에 났습시다만 거기 와 가지고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령관님께 먼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령관님도 일관되게 본인이 알고 계신 진실을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굳게 믿고 있고 저 또한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707부대원들이나 저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가결이라는 이런 절차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상태로 순수하게 부여된 건물 봉쇄 및 확보 임무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모든 질문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본회의장, 그래서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 질문으로 계속 매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자분들께 해명하는 차원에서 중간에 들었던 뉴스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못 전달이 됐고 이 부분은 제가 군검찰 20여 시간 조사하면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건은 사령관도 그렇고 저도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윤상현 위원** 12월 10일.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공하는 식권으로 구내식당에서 먹고 재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그날이 12월 10일이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12월 10일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까 2월 10일이라고 얘기하셔서요.

○**윤상현 위원** 2월 10일이 아니라 12월 10일.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12월 10일 처음 국회에 왔을 때 식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민주당의 보좌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령관님 좀 쉬게 방 하나만 협조해 달라 그래서 방을 협조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 말고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사령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 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런 와중에…… 그 위원이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두 의원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고.

저는 사실 그날 아침에 사령관님께 전화드려서 좀 일찍 오시라고 했고 주차장에서 30분간 두 명이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김병주 위원 유튜브 할 때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양측 의원이 같이 오셔야지 한 측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사령관님께서 지금 민주당 프레임에 쫓겨 계신데 오늘 발언하실 때 중립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령관님께서 오전에 질문을 받으시고 저는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저희 사령관님께서 거짓말 이런 것 못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휴식 시간이 되었는데 위원 이야기를 여럿 듣고 하면서 사실 저도 사령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그런 거면 오후에 박범계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

변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고 그 이후에 박범계 의원이 들어오셔서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처음에는 권유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령관께서 한번 얘기하시고 그때 박범계 의원께서 노란 메모지에 기록을 쪽 하셨습니다. 하시고 잠시 있다가 ‘한 번 더 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령관님께서 말한 게 본인이 적은 것하고 다르다, 아까 그것 아니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메모한 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박범계 의원 전화를 받고 변호사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조력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에도 배석을 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민주당 대표하는 다른 모 회사 부회장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윤상현 위원** 그것 말씀하시고, 질의 시간이라 딱 한마디……

현재 특전사령관 답변에 인풋을 시켰다라는 게,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오후 현안질의에서 사령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그 경위를 쪽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인풋을 시켰다는 게 ‘의원이다, 요원이다, 인원이다’ 했지만 결국 끌어내라라는 지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윤상현 위원** 그 경위를 다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12월 10일 날 사령관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진술을 하였고 제가 이후에, 12월 9일 전날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수서라는 것을 내고 오셨는데 자수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수서의 내용은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잠시 쉬었다가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본인께서 진실되게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이 아니라서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장님께서 정말 군인이고 또 양심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여태까지의 어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어제 2월 16일 날 국조특위 민주당 일동 명의의 어떤 기자회견 자체는, 2월 6일 날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기 차단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그게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게 사실입니다.

○**강대식 위원** 국민들께서도 꼭 전 사령관의 이런 진술을 이미 확인도 됐고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모를 리 없는데 어제 이런 국조특위 일동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개탄스러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단장께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꼭종근 사령관한테 단전 지시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어저께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 부분은 개인 생각은 따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저는 우리 군과 저희 부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라든지 잘못된 것으로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저는 민주당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가지고 재탕 삼탕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혹시 우리 국민들에게 똑바로 잘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24년 12월 6일 날 꼭종근 전 사령관께서 김병주 위원 유튜브에 출연한 건입니다. 혹시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진술인데요. 12월 6일 그러니까 2024년 12월 6일 오전 8시경에 혹시 단장께서 꼭종근 전 사령관 집무실로 간 적이 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함께 있었습니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12월 6일 오전에 사령관 집무실에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혹시 단장께서 직접 받으신 적이 있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제가 사령관인지 비서실인지 구분은 정확히 못 하나 사령관실에서 08시에 잠시 보자고 했고 저는 저만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07시 50분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사령관께서 ‘잠시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기다렸는데 08시 시간 맞춰서 법무실장과 방첩부대장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강대식 위원** 같이 들어왔었습니까?

그러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사령관이 누구한테 받은 질의서하고 작성한 답변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단장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답변서는 아닙니다. 당시 들어갔을 때 사령관께서 계엄 이후 이틀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면서 고민이 많은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날인지 당일 새벽인지는 모르나 김병주 위원께서 연락 오셔서 ‘오늘 항의 방문 형태로 올 테니 정문 앞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김병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상 질문 같은 것을 본인이 연필로 한 10줄 정도 적어서 왔는데 답은 전혀 쓰지 못한 상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 좀 전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에서도 있었지만 회유라는 어떤 사전적 의미는 어루만지고 잘 달래서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단장이나 꼭 전 사령관을 누가 회유를 했느니 회유를 안 했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어느 기관으로

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기 전에 사전에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 시각에 봤을 때는 하나의 회유라고 할 수 있지 조사도 다 받고 수사도 다 받은 상태 그 이후에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듣는 것이 그게 회유라고……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했는데 그 전에 하는 게 오히려 회유의 오해성이 있다, 아니면 그 이후에 하는 게 회유의 오해성이 있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 부분은 제 개인 생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대식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회유를 당했다, 회유를 안 당했다 이게 아니고 회유라는 사전적 의미의 낱말만 따져 본다면 수사나 조사를 받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회유에 속하겠나, 아니면 수사를 다 받고 조사를 다 받고 그 이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회유라고 생각되느냐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런데 당시 상황은……

○**강대식 위원** 아니, 당시 상황 말고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게 회유 측에 속하느냐 이 말이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 부분은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광종근 전 사령관과 함께 민주당 위원과 좀 전에 윤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면담을 하신 적 계시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강대식 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야당 위원님들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야당 수석전문위원 입에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쟁겨 주겠다. 변호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까, 기억에?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 기억에는 대세는 기울었다, 말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전문위원이 한 이야기고 변호사 선임에 관련돼서는 박범계 의원과 부승찬 위원께서 한 명씩 2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는 박범계 의원께서 언급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707단장님,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조특위 위원이면서 국방위 위원이고 또 그 이전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707단장이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이 지금 현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육사의 신조가 있잖아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월 6일 날 유튜브를 찍은 정황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전에 국방위 개최가 되지 않아서 항의 차원으로 특전사를 방문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령관이 위병소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찍게 된 것이라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 당시 광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707특임단장이 합쳐서 그때 유튜브에 나가게 된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논의한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언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앞서 말씀대로 12월 6일 08시에 사령관 요청에 의해서 3명이 사령관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때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최초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만 오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여당 의원님들도 모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 기억에 1시간 정도 의사 교환을 했는데 사령관께서 본인이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부대원들과 부하들을 위해서 꼭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09시 정도부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 빨리 준비를 하자 해서 받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안지를 써 드리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연습시간을 드린 이후에 나왔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광종군 전 특전사령관은 707특임단장 포함해서 법무실장 등 일부를 불렀다면 사전에, 그 전에 유튜브를 찍은 김병주 위원과 통화했다는 얘기지요. 맞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사전에 통화를 했고 예상 질문을 받았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디쯤 오고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12월 6일 날 국방위가 열리지 않아서 항의 방문을 하게 돼서 찍은 게 아니고 사전에 김병주 위원과 특전사령관이 전화해서 질의도 주고받고 유튜브도 찍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작된 것 맞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유튜브 촬영까지는 저도 잘은 모르나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나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예상 질의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답변은 누구 주도하에 준비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답변은 법무실장이 손으로 작성해 드렸고, 사령관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써 드리는 형식으로 했고 결국 내용은 사령관 의지에 의해서 작성한 게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러한 답변서를 같이 작성했는데 이렇게 답변한 답변서와 나중에 유튜브를 찍으면서 김병주 위원과 대화한 내용의 싱크로율,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유사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앞부분은 좀 비슷했는데 후반부는 예상 질문에 없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 저희 특전사 부대원들은 사령관 유튜브 보면서 그냥 고마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양심고백을 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다시 돌려 봤더니 김병주 위원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지침 받은 게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회의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거기 들어간 인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본회의장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질문이 받은 것과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말은 질문이 특정한 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해했다는 거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지난 12월 6일 광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위원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전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김병주 위원이 ‘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족수를 못 하게?’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광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 즉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이나 요원들을 밖으로 빼라는 지시는 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때까지는 정족수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답변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묻는 박범계 위원 질의에, 오전에는 12월 10일 오전에, 그러니까 광종근 사령관과 특임단장이 식사 후에 의원들을 만나기 전에는 오전에는 직접적인 설명을 답변을 안 했어요, 대통령이 뭐 통화 사실. 그런데 오후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등 갑자기 답변 태도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12월 10일 광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고 ‘아직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전화했다는 걸 확인해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화상회의 중에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그걸 들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질의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서는 1여단장한테 지시를 하지 않았고 707단장과 전화로 통화했다, 707단장에게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간략하게 대화한 걸로 진술하셨고 1여단장한테는 직접 전화를 안 했는데 본인이 상급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복명하는 소리가, 복명 소리인지 전화기 안에 있는 상급자의 소리인지는 모르나 그게 회의장 시스템으로 여단에 전파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광종근 사령관의 그동안에 방송에 나간 것, 유튜브 그다음에 국조위에서 발언한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굉장히 많은 단어가 바뀌어요. 여기 특전사령관이 있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할 텐데, 제가 707단장한테는 말을 못 하지만……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더 주세요.

○강선영 위원 707단장은 광종근 사령관이 부하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촬영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광종근 사령관은 본인의 답변에 의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12월

1일 날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6개 시설의 확보 임무를 들으면서 계엄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게 위법하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특전사의 가장 정예부대인 707특임단과 공수여단들을 어떠한 지시가 있었어도 출동시키지 않는 게 정말 부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지시를 해 놓고 나가서 다른 특정한,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본인이 마치 부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정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는 사령관님의 진실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께서도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12월 3일 21시 45분에 김용현 전 장관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그 계엄이 이런 계엄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군이 동원되는 계엄을 생각하셨고 그것 또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본인께서 말씀하신 게 북한의 어떤 도발에 의해서 가는 것도 나는 반대하지만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자세로 준비를 했고, 단 그날 21시 45분에 김용현 장관의 직접 지시, 20분 후에 발표가 있다 이 지시를 받고 당황스러워서 부랴부랴 1·3·9여단에 그리고 특항단과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항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령관께서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생각의 착오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부대와 부하를 위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거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더 드릴까요?

○**강선영 위원**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더 드리십시오.

○**강선영 위원** 제가 707단장이 특전사령관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군인으로서 좋은 자세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707단장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12월 1일 김용현 장관한테 6개 시설을 확보하라 할 때까지는 계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짐작을 했고 그것이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21시 40분경에 예하 부대에 지시할 때 그 지시를 알고 고민을 했다까지도 이해하고 그런데 군인이기 때문에 출동시켰다 그것까지도 제가 군인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이후의 태도가 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유튜브를 찍고 의원들이 변호사를 대 주겠다 또는 특별하게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말에 의거해서 그렇게 개별적인 만남을 했냐는 겁니다. 그렇게 정정당당하다면 국조특위에 나와서 본인의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특별한 밀폐된 공간에서 특정 정당의 인원과 대화를 나누고 그걸 한 것은 군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답변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 군인으로서 잘못했다는 것이지, 군인으로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한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그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라 임무를 수행한 것 자체에 대해서 말이 바뀌고 답변이 자꾸 그때그때 오락가락하고 또 요구하지도 않은 자수서를 혼자만 작성해서 내서 본인의 안위를 택한 그러한 방법이 제가

볼 때 군인으로서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임단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김현태 특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12월 10일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가 있을 때 아침 일찍 도착해서 특전사령관하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때 사령관이 민주당 프레임에 쫓겨 계신데 중립적인 입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개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게 된 배경이 좀 있나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배경은 한 가지입니다. 12월 6일 날 김병주 위원 유튜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12월 10일 점심을 먹고 나서 휴식시간 중에 의원도 들어오고 전문위원도 들어와서 쭉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모 회사의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한 이야기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 기억에는 부승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게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당시 기억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부회장 전문이면서 민주당에서 믿는 잘하는 변호사다 그래서 붙여 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수서 내용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수서가 어느 시점에 누구랑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자수서는 본인께서 12월 9일 검찰 출석 전에 작성하셔서 검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본인이 발표를 한 그 자수서 내용이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김현태 단장이 주장하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희 자수서 작성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문장 기억나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사실 12월 10일 방에 있을 때는 저는

자수서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단 제가 이후에 확인한 자수서 내용과 10일 날 박범계 의원을 만나고 오후에 진술한 자수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서 문장이 이상한 게 뭔가 하면 그 내용을 보면 ‘저희 자수서 작성 시점과 내용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라는 소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한 자수서가 아니고 ‘저희 자수서 내용과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상의를 하면서 이걸 썼느냐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는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최초에 확인했던 자수서하고 박범계 의원 이후에 또 한 내용하고 지금 말이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진술 내용 자체가.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단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자수서가 하나가 아니고 세 개 있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이야기는 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자수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시점도 잘 모르시는 겁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시점은 한참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수서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시점에서 세 번을 쓴다는 게 과연……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알기로 검찰과 군검찰에 여러 차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첫 번째 출석할 때 첫 번째 자수서를 가져갔고 그 이후 출석 때 두 번째, 세 번째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내용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죽 진술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이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면서 비로소 국회의사당으로 오는 걸 알았고 봉쇄, 그렇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임종득 위원 통제 임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쯤 되는 거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희는 출발할 때부터 건물 봉쇄와 확보였고 저희 부대원들은 국회에 도착해서 국회에 온 줄 대부분이 알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707 단장도 오기 전까지는 국회의사당에 대한 어떤 임무와 관련된 사전 단편명령이나 국회의사당에 대한 설계나 아니면 와서의 행동요령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단지 봉쇄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제가 임무를 받은 것은 대통령님 대국민담화 이후인 22시 31분에 안보폰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군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아주 이해적인 상황으로 제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훈련 하나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훈련과 관련된 상황을 부여받고 단편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요? 그 계

획을 임무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임무들을 부여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나오지요, 실제로. 작전은 이 절차가 좀 더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그런 일이 그 전에 한 번도 아무런 지침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부대원들도 복귀 이후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왜 우리가 왔지? 왜 보냈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임종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당일 날 707부대가 투입돼서 나갈 때까지 보였던 모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아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사전에 계획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었다라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련되고 계획되었다 한들 만약에 그 대상이 우리 국민이었다면 일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계속 봉쇄 임무를 받았다 그다음에 또 확보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봉쇄, 확보가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봉쇄의 임무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도 언론에서 그 차이를 보긴 봤으나 제가 그냥 군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봉쇄는 건물을 완전히 막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 케이블타이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잠글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없다 보니 제가 출동할 때 케이블타이를 좀 더 챙겨라 해서 외곽에서 문을 다 잠그려고 했고, 확보는 이 봉쇄가 완료되면 사령관께 보고드려서 건물이 봉쇄됐습니다 하고 추가 지침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은 들어오고 필요한 사람은 못 나가도록 통제하는 것이 확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임무를 봉쇄로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뭐 민간인들도 많고 사람들이 미리 다 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이걸 이제 방호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좀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들여보내지만 위협할 수 있는 테러리스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못 하게 하는 그런 임무 정도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군인으로서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고 저희는 이제 봉쇄 임무를 마치기 전에 상황이 종료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제가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성일종** 12월 6일인가요, 우리 광종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위원 유튜브에 출연을

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김병주 위원하고 광종근 사령관하고는 전에 근무를, 사령관과 작전차장인가 이걸로 근무한 적이 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은 개의치를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광종근 사령관은 현직 신분이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성일종 그렇지요. 김병주TV는 개인 TV란 말이에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야당 정치인의 TV예요. 여기에 군인의 신분인 사람이 TV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나가기 위해서 관련된 절차를,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게 군인복무법 17조인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것 분명히 어긴 거 맞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왜 나갔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 보고받으신 적이 있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그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군인복무규율에 나와 있는,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규정 하나를 어긴 것에 대한 징계 절차는 추후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고 그 이외에 본인들이 수사 집중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간 것은 광종근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수방사령관, 지금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는 특임단장도 그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언론에 가서 자기들 입장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하게 그 사안들이 수사 결과가 진행된 다음에 제가 인사적 차원에서 조치를 할 때 그 문제를 따질 것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제가 지적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요 광종근 사령관이 제일 먼저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서 이거 나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10일 날 국방위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날 오래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아마 늦게 했을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특임단장이 아는 분이 민주당 보좌관이어서, 한 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을 위해서 휴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니깐 이 공간의 3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말이지요. 거기에 민주당 이상협 전문위원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승찬 위원이 또 들어왔고 박범계 의원이 들어왔고 전화해서 변호사들이 들어왔고.

제가 지적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10일 날도 또 이렇게 만났어요. 광종근 사령관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닙니다. 박범계 의원은 광종근 사령관의 요청에 의해서 만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현태 특임단장이 그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청을 안 했는데 여기서 온 거예요. 직접 쳐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만났고 여러 회유들이 있습니다. 제

가 그건 뭐 언론에 다 발표를 했으니까 굳이 제가 두 번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문제는 뭐냐, 6일 날 김병주TV에 나갔을 때 우리 대행을 비롯한 그래도 몇몇 안 되는 지도부가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다른 분들도 안 나갔었고 10일 날도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 군인복무기본법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 상임위 중이고 여기에서 물으셔라 이랬으면 지금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게 오염이 안 되고 제대로 갈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다음에 인사조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을 못 막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지점이 잘못됐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사후적 관점이지만 이렇게 제복 입은 군인들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나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된 결과라고 봤을 때, 제가 최초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엄중하게 문책하지 않은 것 그것이 아마 또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처리된 이후에 분명히 인사적 조치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차관님이 비교적 원칙주의자십니다, 제가 이렇게 쪽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물론 이 상황이 너무 엄중했고 처음 겪는 일이었고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다들 혼란 속에서 어떤 질서를 모색하기는 시간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지점을 잘 보셔 가지고 지금 군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주십사 하는 말씀 또 하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임단장님, 제가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어요.

용산 전쟁기념관인가 거기서 회견을 한번 하셨었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소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나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처음에는 국방컨벤션에서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용산 전쟁기념관 야외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셨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위원장 성일종 그때 기자회견한 것은 본인의 자의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다른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좀 해라 해서 하셨던 건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자의로 갔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자의로 하셨었던 그때 목적은 뭐였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12월 6일 날 사령관께서 직무 배제되었고 12월 7일 토요일 날 1·3·9여단장이 직무 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직무 배제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제가 규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보고를 하고 하는 게, 규정이 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나중에 지겠다는 자세로 우리 부하들에게……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했고 부하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하들에게 미안했고 이분들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어 그리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의적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김현태 단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군복을 입었던 선배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명령에 의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령이 되었을 때 죽을 자리라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오늘 또 한 번 더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단장님은 단장님 외에 밑에 있는 부하 부대장이나 참모들이 조사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숫자는 세어 보지 않았으나 영관 장교 위주로 조사를 했고 단전을 했던 요원이 오늘 군검찰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아까도 국회 정족수 얘기를 하고 했는데 계엄법을 보신 적이 있어요, 12월 3일 이전에?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없지요? 계엄법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을 발령하고 나서 그게 국회에서 의결해서 돼야 된다는 것도 끝난 다음에 안 거지 당 시에도 몰랐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명예 의해서 따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독자적으로 단장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건 하자, 안 하자 이런 결정을 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더 특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증인에 707단장님은 포함을 안 시켜 줬는데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주임원사는 아니고 8월 8일 대통령과 골프를 쳤던 요원 중의 한 명입니다.

○한기호 위원 아, 그 명단에 있는 이번에 증인으로 오는 사람이 대통령님과 골프 쳤던 분이에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저는 왜 단장님은 안 부르면서 밑에 있는 부사관을 부르는가 이랬더니 골프를 쳤다고 부르는군요.

그다음에 JTBC하고 인터뷰한 과정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3층에서, 앞에서 쪽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JTBC 통상 인터뷰를 하면 지금 저 카메라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사전에 질문지를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얘기하는 걸 지금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먼저 주고 대답을 듣는 걸 보고 그냥 찍었는가, 그 대답한 것을 보고 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변경해서 대답을 했는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변경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단 한 번 연습을 하고 두 번 찍은 걸로 기억합니다.

○한기호 위원 연습을 하고 찍은 거예요, 그냥 질문하고 찍은 게 아니라?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연습이었는데 촬영한 게 좀 달라서 다시 촬영한 건지는 기억 안 나나 사전에 이렇게 답안지를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찍고, 찍고 다시 한번 또 찍고 이렇게 했던 거였네요.

그다음에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나온 것 이런 걸 보면 회유냐 아니냐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언한 것 중에 단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박범계 의원님과 민주당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 기억에는 전문위원께서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누가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기호 위원 하여튼 그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 있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12월 3일에서 벌써 두 달 이상 지났으니까 민주당 위원들하고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 양쪽이 다르다는 걸 느끼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민주당 소속된 당직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군인들을 보호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건 개인 사건이라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위원장 성일중 더 드리세요.

○한기호 위원 박범계 의원이 질문하고 이러고서 나중에 JTBC가 나왔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아까 얘기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한기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박범계 의원하고 앉아서 테이블에서 얘기한 것하고 카메라로 찍을 때하고 또 얘기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종근 중장은 여러 번 인터뷰를 하거나 그다음에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국방부에, 국방위원회에 오든가 또 국조특위에 오든가 자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단장님 보니까 아예 좀 민감한 사안은 써 가지고 오셔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최소한도 군인은 자주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그게 옳다고 했으면, 그게 맞다고 했으면 그걸로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앞으로도 어떤 자리가 있더라도

단장님으로서 육군 대령으로서 ‘내가 사실 이거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한 건 똑같이 답변하고 똑같이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707단장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모범 장병 격려인 줄 알았더니 계엄 사전 모의였다’, ‘대통령께서 단장님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불러서 술을 먹었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 요원이 외곽 경비를 서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다’, ‘특임단이 국정원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케이블타이를 특정인 체포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계속 시중에 나왔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게 전부 다 가짜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기호 위원** 그래서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쉽게 대답하면 그냥 또 넘어가서 가짜가 그냥 판치는 거야.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단호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단장님, 12월 6일 날 김병주 위원 개인 유튜브 촬영할 때 같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인터뷰장은 안 갔고 사전 준비할 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윤상현 위원** 준비할 때. 그런데 준비하면서 사령관한테 ‘왜 이걸 민주당 의원 두 분을 불러 놓고 하느냐? 국민의힘 의원도 당연히 와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투셨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다투셨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지휘관이셨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사령관님 답변은 어떠셨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서로 대화가 오고 갔는데 사령관께서 말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아니면 못 할 것 같다. 내가 너희들 다치지 않게 꼭 하겠다,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 동영상도 저도 좀 봤는데, 그러면서 인원이나 의원이나, 뭐 여러 가지 끌어내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윤상현 위원** 특히 그 자리의 박선원 위원에 대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더라는 거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오늘 단장님 보면서 느끼는 건 참 정의감이 있으시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하시는 군인이시다, 정말 군인 정신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일종의 관련자, 증인 되시는 분들한테 가서 회유를 하고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도저히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느끼는 정의감에서, 도대체 민주당 의원분들의 어떤 회유, 가짜뉴스 퍼뜨리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까무라칠 정도로 정말로 국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진실은 가려져 있고 오직 정권 찬탈 이 목적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양심을 던질 수 있나?

그래서 정말로 국회와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입장에서 느낀 것을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언론에서 다수의 가짜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707 제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707 부분은 여러 루트로 이야기했으나 결국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군 관련된 가짜뉴스를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했으나 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치 관련된 뉴스를 잘 안 보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치 그게 정치적 중립인양 믿고 있으나 제가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정치를 잘 알아야 되겠다, 정치를 몰랐기 때문에 회유라든지 이런 말들이 돌고 실제 그게 어떻게 보면 회유로 비쳐질 수 있는, 본인은 진실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단장,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장께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민주당 위원들의 논리를 강요당하는 자리였다’ 또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죄송한데 어느 부분인지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헌법재판소 어느 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강대식 위원**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언론에 난 걸 보니까 단장께서 답변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논리를 강요하는 자리였고 또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더랬습니다. 맞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저는 현재에서 제가 아는 사실 위주로 답변을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 사실 위주로 답변한 부분이 여기 언론에 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직 기억 못 되살리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증언한 그 상황을?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질문이 뭐였는지 알려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래 놓고도……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단장은 ‘국회 특조위 위원들의 논리를 강요하는 자리였다. 잘못된 답변을 유도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 이렇게 답변을……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 부분은 언론에서 저나 사령관이 인터뷰한 내용, 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고 제가 기자회견 한 내용과 그리고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한 내용 중의 일부가 좀 다르다……

○강대식 위원 다르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전체적인 사항은 군검찰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제가 발언한 내용 하나하나를 짚어 가면서 여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한 이유를 다 설명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언급했을 때 제가 좀 잘 못 들어서 ‘아니요’를 ‘예’로 답하거나 한 부분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답은 제가 기자회견이 처음이었고 국회 출석이 처음이었는데 특히 특조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원하는 답변을 압박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제가 말실수한 게 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한 겁니다.

○강대식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국조특위 기일을 보름이나 연장을 하면서 특위에서는 130명이 넘는 그런 증인을 채택해 놓고도 김현태 단장을 비롯한 중요 인물들을 사실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무슨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규명과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조특위에서는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김현태 단장을 비롯한 중요 인물들을 즉각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를 합니다.

단장님, 향후에라도 어느 자리에서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의사가 계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이고요.

직무대행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국방위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대행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슷한 계엄법이 한 예순 건 정도가 논의될 예정인데 야당 의원들께서 이번 계엄 선포를 계기로 해서, 많은 계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제가 쪽 훑어 봤는데 위헌 소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 법률안이 개정되었을 때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안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봤는데 대행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지요. 물론 이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 약 한 40여 년 동안 계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기는 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계엄 논의가 활발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 계엄법 개정도 헌법과 법률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60여 건의 계엄법 관련된 개정 발의를 해 주신 것을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 개정 취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나 이게 헌법과 충돌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있어서 이것은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일단 저희 국방위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고 또 다음부터 법사위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것이 해소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707특임단장님, 아마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많은 장소에서 많은 질의를 하면서 매우 어렵겠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사를 몇 건 보니까 707단장께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느 포인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사령관께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부대와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니다. 상급 부대도 그리고 여당에서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니다. 단 김병주 위원께서 왜인지 모르겠으나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으셨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과 사적 만남이 진행되면서 본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실을 말씀하신다고는 하셨으나 조금 왜곡될 수 있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좀 전에 곽종근 사령관이 부대와 부하를 살리고자 했는데 손을 내밀어 준 것이 김병주 위원이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았다고 했는데 저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그 손을 내민 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손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10일 국정조사에서, 국방위에서 707단장과 특전사령관한테 제가 필생가로(必生可虜)라는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기억합니다.

○강선영 위원 장유오위(將有五危), 장수가 비상 상황에서 위급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중에 필생가로, 살려고 하면 포로가 될 것이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필생가로, 오도 가도 못 하는 민주당의 포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종근 전 사령관은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기 전 12월 1일 날 김용현 국방부장관한테 6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기 전에 707특임단과 특항단에다가 불시 점검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를 시키고 훈련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12월 3일 당일 아침에 시켰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불시 점검 훈련인 줄 알고 707특임단과 특항단은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항단의 헬기를 운용하는 부대도 그다음에 707특수임무단의 단장 이하 모든 간부들도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슨 임무를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다가 국회에 내려서 봉쇄, 확보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당시에 707특임단이 들어온 상황은 정말 군인으로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시다. 왜? 대테러 상황도 아닌데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임무가 정말 군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시다. 그래서 707특임단, 그 정예화된 특수부대가 행동한 것은 거기에 있는 민간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들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터트린 것도 당시에 있는 군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던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터트렸더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맞습시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707이 위하나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이 방어적으로 소화기를 터트렸고 오히려 그 소화기를 터트림으로써 혼란은 가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제가 검찰에도 진술했고 위원장님께도 설명드렸는데 당시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에게 와서 좀 자랑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저희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사실을 들으면서 부대원들이 잘 참아 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707특임단이 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소화기를 터트리고 도발을 통해서 폭동을 오히려 유발시키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맞습시다.

○강선영 위원 자, 제가 알고 있는 707이 만약에 그들이 적이었거나 테러 집단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다 제압을 하고도 남는 체력과 전투력을 가진 부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맞습시다.

○강선영 위원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화기를 터트리고 육체적으로, 폭언과 그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위해 행위를 했지만 참고 그 상황을 다 극복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맞습시다.

○강선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707에 있는 모든 간부들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생가로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가서, 특전사령관은 미리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광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10시 30분 전에 1공수여단에다가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 대통령이 임무 지시를,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사전 행동을 한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1여단장 인터뷰 내용을 봤고 그 내용은 당일 21시 45분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직후에 1여단장께 부여한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지시를 특전사령관이 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특전사령관이 내렸습니다.

○강선영 위원 특전사령관이 내린 거지요, 사전 출동을.

그리고 세 번째, 그 당시에 707특임단은 문이 앞에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유리창을 깨라고 지시한 건 누구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지시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자, 그러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회의 본회의장 봉쇄, 즉 거기서 어떤 특별한 것의 누구를 끌어내, 정치인을 끌어낸다는가 요원을 끌어내라 그것이 아니라 그 인원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 안에 있는 인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맞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부연 설명 한번 드리도록……

○강선영 위원 그런데 오히려 특전사령관은, 내부 전기라도 끊고 들어가야 되나, 공포탄이라도 쏘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쏘야 하나 등등을 발언한 건 특전사령관 맞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특전사령관 개인 판단에 의한 지시였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개인이 내부 전기라도 끊고 공포탄이라도 쏘거나 테이저건이라도 쏘거나 하는 판단을 하고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했으나 계엄사령관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하지 못한 거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순서는 좀 다르나 설명을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707특임단이 그날 한 행동은 정말 국회를 장악해서 거기를 완전히 그 군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임무를 받은 국회를 안정화시키고 봉쇄하고 확보해서 시설만을 확보하겠다는 노력 그다음에 직접적인, 육체적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맞지 않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나머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대원들은 국회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국회라는 것을 대부분이 인지했고 건물 봉쇄를 하다가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1·2·3호기와 같이 1호기에 탑승해서 내렸는데 당시 국회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24명 1대대가 후문에 도착했을 때는 후문에 경비가 없었고 저희를 보고 5명 내외의 소수 인원이 뛰어나오면서 마치 우는 듯한 ‘제발 들어오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말투로 저희를 저지도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장애물을 가져와서 막으려는 시늉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아, 이건 봉쇄 끝났다, 자동이구나’ 하면서 12명만 외곽에 남겨 두고 측면과 정문으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문 몸싸움 중에서도 제가 병력을 빼서 후문으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후문에 12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봉쇄 임무만 부여된 채로 대기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정문 바깥쪽을 봉쇄하려다가 제한돼서 소수 인원으로 정문 안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이저건 관련된 것은, 사령관께서 개인 생각하신 게 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그리고 단전 시도입니다. 최초에 전화가 오셔서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쓰면 뭐 방법이 없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무기 사용은 제한된다고 즉답을 드렸습니다. 사령관도 바로 ‘그러면 쓰지 마라, 국민이 아무도 다치면 안 된다’ 강조를 하시고 이 지시 이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사용하려면 계엄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고 이에 사령관께서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단장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셔야 될 텐데 12월 3일, 4일 계엄이 있었잖아요. 4일 날 해제되고 난 다음부터 실제 김병주 위원 유튜브에 출연하는 12월 6일 사이, 한 이틀이 됩니다. 이들의 기간 동안에 광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한 거나 아니면 실제로 만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전화 통화는 없었고 12월 5일이나, 12월 5일로 기억하는데 사령관께서 707 출동한 병력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해서 출동한 197명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령관께서 짧게 1, 2분 정도 ‘다친 사람 없냐, 미안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힘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정도를 이야기만 하고 나갔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임종득 위원** 단장하고 나눈 대화는 전혀 없습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따로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은 실제 계엄 이후에 항의 방문할 때까지 특전사령관과 단 한 차례도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이나 우리 707단장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놓고 봤을 때 두 번의 통화, 확인된 게 두 번의 통화입니다.

그 첫 번째 통화는 12월 5일인지 6일인지 6일 아침 일찍인지는 특정되지 않으나 그제 한 번 있고, 한 번은 회의 중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통화의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술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정확한 시간들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2월 5일 날 통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한번 기억을 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저도 사령관께서 연필로 메모한 것과 밤새 잠을 못 잤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이라고 당시 추측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령관께서 진술하신 걸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12월 5일 날 전 김용현 장관님께서 전화해서 당당히 가라는 말을 듣고 ‘이건 아니다,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때 결심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12월 5일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 이후에 전화가 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추측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단장님하고 비슷해요. 왜 그런가 하면 12월 5일 날 자정쯤에, 12시 경에 광종근 사령관이 예하 여단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심경의 변화와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일어나는, 8시에 불러서 회의를 할 정도면 그전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12월 5일 날 김병주 위원하고 통화가 있었다, 상당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들이 당일 날 회의 시간에 특전사령관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일 것이라고 합리적인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동의 좀 하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시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

○임종득 위원 시간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두 번째는 김병주 위원의 두 번째 통화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단장님이 특전사령관 방에서 3명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3명이 대화를 3시간 동안 했습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거기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기억이 납니까, 그 사이에 통화한 기억?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통화가 한 번 왔고 어디쯤 오고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그 통화 내용 중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쪽에서 물으면 사령관이 답변하는 형식의 통화가 좀 길어졌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있었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사실 통화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나고……

○임종득 위원 아니, 시간이 좀 길지 않았나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2분에서 2, 3분……

○임종득 위원 2, 3분 정도.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임종득 위원 그래서 나온 이야기는 기억이 안난다 이거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리고 두 번의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09시 경에, 12월 6일 09시 경에 특전사령관이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면 같이 있을 때예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통화를……

○임종득 위원 그때 통화한 걸 기억하십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한 것은 기억나고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인터뷰를 한다, 너는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당시에 수방사령관이 약간 인터뷰에 부정적으로 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임종득 위원 정확하십니까. 그건 현재에서 수방사령관이 증언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특전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수방사령관에게 ‘김병주TV’에 출연해서 나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나가자는 주의의 권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급 기관과 사전에 신고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회의가 3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이 특전사령관이 그런 결심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유튜브 사전 질의를 받았으니깐 그걸 가지고 작성하는 과정이 길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령관의 발언 내용 중에 이 유튜브 출연이 특전사령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수방사·방첩사까지 한다는 내용의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없어요? 이것도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수방사도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초 수방사령관은 전화로 반대를 했고, 유튜브를 본 이후에 사령관과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이후에?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지요.

12월 10일 점심을 먹고 나서 단장이 알고 있는 민주당의 모 보좌진을 통해서 3층 회의실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방은 제가 먼저 요구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가서 즉 그야말로 쉬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전문위원이 들어온 건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부승찬 위원, 박범계 의원이 들어오고?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전문위원은 들어오기보다 같이 이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임종득 위원 거의 동 시간에?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왜냐하면 저희가 오전에 출석했을 때도 저는 처음 만났는데 와서 아는 척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의 이야기들은 다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단장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 회유를 당한 것으로 이해를 좀 했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강선영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단장 개인의 생각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사령관님 관련된 전체적인 뉴스를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약간 고립돼 계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리고 현재 가족들 면회도 안 되고 변호사 조력만 받고 계시는 상태에서 여러 좌우 측 분들이 만나자는 것도 안 만나시고 아예 혼자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하셨던 것들을 보니 진실성이 좀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종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시간 좀 주시지요.

대표적으로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광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바뀌고 있는 게 또 이 부분이에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과 관련돼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특전사령관이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했고 그 건의를 받은 계엄사령관이 거기에 있던 정책실장하고 몇몇 인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나서 금지를 지시했다라는 증언을 계엄사령관도 했고 제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공소장에 보면 그와 유사하게 특전사령관이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으나 그것을 금지하는 지시를 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해 주세요.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본인의 주장은 뭐가 하면 자기가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금지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장의 이야기는 좀 다르잖아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것 사용할 수 있냐라고 확인하거나 부탁하는 쪽의 통화가 있었고 그리고 안 된다고 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의견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사령관께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그 이후에 법무실장을 포함한 참모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후에 계엄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사령부에 문의를 했으나 정확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의견이 약간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위기가 사용 목적으로 전화를 했다 또 어떤 인원들은 그 분위기가 사령관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707단 장하고 논의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향후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법무실장의 조언을 받고 물어봤다, 이 두 부분이 약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것 없으시지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또 김현태 특임단장이나 아니면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자수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수서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기 범죄사실을 자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 중에 이걸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님, ‘곽종근 사령관이 자수서를 한 세 번 정도 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게 사실인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 자수서가……

○위원장 성일종 횡수는 세 번?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예, 횡수는 3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건 맞나요? 이게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좀 물어봤고요.

또 전에 제가 면담을 할 때 특임단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술을 해 주셨어요. ‘박범계 의원이 자기가 쓴 거다. 쓰고 나서 자기가 쓴 문장을 강요했다. 쓰고 나서 자기가 쓴 문장을 계속 연습시켰다. JTBC가 봤을 때도 예행연습을 한 번 하고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틀을 짜는 그런 느낌이 돌이켜 보니까 분명히 있다’ 이게 그때 오셔서 가지고 해 주신 건데, 궁금한 것은 박범계 의원이 자신이 뭘 좀 썼다는 거지요? 쓰고 나서 자기가 쓴 문장을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강요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세부적인 단어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때 위원장님께 설명드린 건 정확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초에 박범계 의원께서 사령관께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서 입을 여셨는데 그때 박범계 의원께서 메모지에 받아 적으셨고 이후에 한 번 더 사령관께서 연습 차원에서 말을 할 때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면서 문장을 본인이 적어 둔 문장으로 똑같이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JTBC 촬영까지 죽 이어졌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두 번째, ‘사령관님한테 그 멘트를 아예 인풋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거든요. 그 인풋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언론들은 정확하게 대통령 이랑 얘기했던 것을 인풋시켰다, 이렇게 하는 걸로 몇몇 언론들은 얘기를 했는데 그 인

뜻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당시 위원장님과 대화를 나눌 때 나온 그 단어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걸 근거로 해서 나온 단어이지 큰 의미를 두고 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자기가 불러 주고 이렇게……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본인이 받아 적은 것을 그대로 사령관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다는 뜻에서 인풋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차관님, 오늘 나오셨는데 많은 질문은 안 받으셨습니다, 지휘 계통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지금 국방부를 잘 이끌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잠시 우려감을 표했지만 이 사안이 되게 엄중하다는 것에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러는 것들은 각 위원회, 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다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완전성을 갖춘 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그랬으면 하는 것이 사실 바람입니다.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오늘 여기 707단장 1명이 참석해서 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마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계시고 거기서 또 다양한 궁금하신 점이 확인되는 국방위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제가 정중히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저도 차관님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도 함께 오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에도 야당이 요구하는 걸 제가 다 받아서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국조특위에서 김현태 단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으면 이 회의를 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불평등한 국회의 균형성을 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들은 그동안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것이고 또 오늘 차관님이나 김현태 대령의 여러 증언과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태 단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혹시 못 하신 것 있거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제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대면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선영 위원님도 계셨고 임종득 위원님도 계셨고 여러 분 계셨지만 제가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증언이 남아 있었고 현재 이후에 군검찰 피해자 조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일 최종 군검찰 피해자 조사에 참석해서 11일 새벽까지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지난주에 위원장님 대면 설명을 제가 거절

했던 것과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는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뭐가 궁금하신지도 몰랐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보다는 위원장님이 대표이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설명을 드리게 됐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12월 4일 날 복귀했을 때 사령부를 포함한 육군본부, 국방부 어느 누구도 4일, 5일 저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전화는 딱 하나였습니다, ‘부대원들 괜찮냐. 다친 사람 없냐’.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거의 혼자서 언론을 보고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저한테 수많은 기자분들이 연락 오지만 제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 계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광종근 사령관이나 또 김현태 특임단장이나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애잔하게 들립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돼서 공모한 사람이 있거나 또 미리 알고 앞장서서 했었던 군인들은 반드시 엄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순히 출동했고 출동해서 질서유지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여야 위원들 공히 옳지 않다라고 전에도 회의할 때 여러 위원들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고 또 정확하게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군 운영에 저는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회에서 출동했던 군인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를 저 위원장은 물론이고 모든 위원들이 감시의 눈을 놓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출동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앞으로, 공격 앞으로 했을 때 가겠습니까? 명령 수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잘 고려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국방부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기호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예, 한 10초만.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습니다.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다음에 국방위원회가 개회될 때 군사법원장하고, 검찰은 지금 책임자가 누구예요, 군 검찰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검찰단장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검찰단장하고. 군사경찰에서는 지금 수사하고 계시는 것은 없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현재 군사경찰은 별도로 지금은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꼭 참석을 시켜서 그분들한테도 국회에서 생각하는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중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의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차관님 배석할 때 군 검찰 관계자, 법원장 이런 분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만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평생 수사 한 번 안 받아 본 분들이에요.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나 상황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보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억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종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기억났는데 이 행정절차를 모르고 내가 한 번도 안 가 봐서 경험이 미숙해서 이러이런 부분을 놓쳤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아까 자수서가 세 번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냇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김선호 차관님 또 707특수임무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대식 강선영 부승찬 성일중 윤상현 임종득 한기호 허 영

○청가 위원(8인)

김민석 김병주 박선원 백선희 안규백 조승래 추미애 황 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